

해피밀 시즌 6-7호를 발간하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께, 이번 달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더욱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서 늘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세상의 힘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고정되길 바랍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로 증거 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리딩지저스와 함께하는 해피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 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캄캄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악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이러한 신화들과 비교하여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
십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아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뺨을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잠언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 읽기



잠언 1-5장

마음이 문제라(잠언 3:1-6)

어느날 사랑하는 딸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뭐가 불편하니?"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해"라고 말이죠. 이제 아이가 마음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번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렘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마음이 이상해"라는 말을 들으며, 아빠로서 저는 곧바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라고 말이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 솔로몬도 자신의 아들에게 마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함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죄인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 8:21)"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기 속에서 솟아 오르는 죄의 구정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주며,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날 대신해 하신 모든 희생적 사역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인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마음을 형성하고 지켜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강력한 사랑의 선포에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 놓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자와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1.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2.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은 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잠언 6-10장

지혜가 부르는 소리(잠언 9:1-6)

인생 살아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매번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래에 갔다가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최고의 선택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는 단순한 판타지 SF 작품이라기 보다도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홍진 감독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많은 평론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상황 속에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알지못했던 사실 하나 하나가 드러나면서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선택이었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토록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잠 9:5-6]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는 아는 듯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함이 얼마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혜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초청을 보고 있노라면, 단연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마11:28-29]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지혜가 없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또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인생을 살아가는 지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희생이었으나, 그 희생은 최고의 선,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전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희생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로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요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희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 11-15장

듣는 마음(잠언 13:1)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일을 만나곤 합니다. 자신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상담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목사답게 성경적인 조언과 격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이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답이었을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마음을 상정한 채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갑갑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데 그 성경적 대안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연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은 좋은 기회이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자"라고 이야기 해주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친구가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미 있으니, 기도하며 그 분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암담한 상황만 읊어댈 뿐입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없음을 겸손함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게다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고, 복을 더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정해둔 나의 정답만을 고집하며 귀를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 없는 이들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십시오. 바로가 끊임없이 완악하였지만, 하나님은 열번이나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후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겔18:2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듣는 마음 없는 자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은 친히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성령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와 듣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나는 듣기를 속히합니까? 말하기를 속히합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언 16-20장

마음을 녹이는 것(잠언 17:3)

어제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듣는 마음을 형성하사, 지혜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개됩니다.

[잠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사 듣는 마음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마음을 연단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대번 '불'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도가니와 풀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것은 불 속에서 어떤 광물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재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녹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은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이 사람의 마음은 연단함의 힘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녹이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라합입니다. [수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진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여호와와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담이 녹았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간담을 녹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녀의 간담이 녹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이 형성되기 위해 우리의 고집과 완고한 것들이 녹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이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간담을 녹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은 우리의 간담을 녹이셨습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했던 마땅한 고초와 질고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모든 인생의 환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묵상질문

1. 최근 나의 고집을 꺾게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신가요?
2.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집이 꺾였나요?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 고집을 꺾었나요?





잠언 21-25장

끓을 수 없는 관계(시 51:6-8)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잠언 25장 말씀은 왕의 지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입장에서 쓴 수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충성스런 신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25: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신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얼음 냉수는 참 구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야 아이스 메이커로 손 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 가운데 아이스 메이커를 통해 간편하게 먹은 얼음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얼음냉수는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여름에 얼음을 구하기 위해선 만년설이 내려있는 높은 산에서 눈을 구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하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하기 위해서 직접 만년설이 나앉은 산을 오르고 얼음을 구해 주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육체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실로 마음도 시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사랑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이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뭔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저를 통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저의 순종, 저의 복종, 저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십니다. 마치 한 여름에 먹는 얼음냉수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충성심의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을 시원케하기 위해 친히 산을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언덕을 지으시며 산의 깊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품없고 작고 약하고 악한 저를 위해 산을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날 살리기 위해 충성다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도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오늘 그 분의 마음을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신앙생활 속에 성도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해드리기 위해 오늘 어떤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문제라(잠언 3:1-6)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천방지축 같아서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
암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본문

[잠3:1-10]

-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나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쁘다가도 갑자기 속상해지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렘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 속에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기 어렵고, 착하게 굴기 힘들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도 아들에게 반복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또한 어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랑과 진실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눔질문

1.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2.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 26-31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잠 31:1-9)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3절), 둘째,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4-5절). 하지만 이는 정말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더 깊은 이유는, 여자에게 힘을 쏟다가 왕으로서의 기력을 탕진하게 되기 때문이며(3절), 술에 취해 법을 잊어버리면 백성을 위한 올바른 송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5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여자를 조심하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소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잊으면 올바른 방향을 붙들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방향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헛된 걸음만 반복하게 됩니다.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를 이 땅에서 잠시나마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고 마땅히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벌어진 까닭은,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소명)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사명)를 잊은 채, 그저 정욕에 이끌린 선택과 판단을 거듭하다 보니 그저 그런 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셨고, 진리이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참된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통치에는 사랑과 진리가 넘쳐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는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질문

1. 나에게 주어진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름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전도서, 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서 읽기



전도서 1-3장

어디를 봐야 할까?(전 1:1-11)

맹모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묘지 근처, 시장 근처를 거쳐 학교(서당) 근처로 세 번 이사한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묘지, 시장, 학교가 왜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나 당연히 그곳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묘지에서는 장례를 치르며 늘 우는 모습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는 그가 좋은 것을 보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학교 근처에서는 더욱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할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더욱 좋은 지역으로, 학군으로 무리해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보며 자라야 할까요? 오늘 전도서는 처음부터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 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해 아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근거로 전도서는 해 아래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갑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고발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시대는 속도가 빠릅니다. 누군가는 AI 구독을 한 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사이에 수많은 AI 도구들이 생겨나고, 그의 쓰임새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고 1년 구독해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AI 대단해보이고, 누군가가 위대해보이고, 어떠한 개념과 이념이 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서 그것은 한낱 먼지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 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해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보셨습니까?
2. 지금 내가 머루며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도서 4-6장

만족은 예수님께(전 4:7-9)

뷔페에 가면 우리는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접시에 자꾸만 음식을 담습니다. 그렇게 몇 접시를 비우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불러서 못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은 여전히 디저트 코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배는 이미 부르는데 아직 못 먹어본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무리해서 몇 입 더 넣고는 속이 더부룩해져 후회하곤 합니다. 분명 배는 채워졌지만 더 먹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은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식욕은 끝내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7절).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그 갈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다시 그 이상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처세에 능한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8절). 지혜조차도 이 허기 앞에서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마음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마저 헛된다고 덧붙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9절). 지금 손에 쥔 것에 만족하는 편이 헛된 공상을 좇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채워도 결국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허기는 어디에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해 아래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요 6:35). 세상의 양식은 잠시 배를 채울 뿐입니다. 이내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지쳐 헛된 바람을 좇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물이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만족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2.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씨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 7-9장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아도(전 9:13-18)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말수는 적고 나서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터지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발을 동동 구를 때 나서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돌아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때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만 기억거나 목소리 큰 사람만을 기억하고 정작 그 위기를 넘긴 사람은 잊혀집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작고 사람도 적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왕이 그 성읍을 치러 왔습니다. 큰 군대로 성을 에워쌌습니다(14절). 성읍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해냈습니다(15절).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그 성읍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15절).

전도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그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16절). 조용히 이르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합니다(17절).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다고도 합니다(18절). 그런데 전도자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16절). 게다가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18절). 지혜가 아무리 귀해도 해 아래에서는 이렇게 멸시받고 잊혀집니다. 애써 세운 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지는 지혜는 어디에서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해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고전 1:24).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하고도 잊혀졌던 것처럼,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도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지혜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를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호령과 힘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2. 그럼에도 선행을 베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도서 10-12장

마지막 페이지(전 12:9-14)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이 옵니다. 두꺼우면 두꺼운 책일수록 그 마지막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어도,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담겨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좋은 책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남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지나온 끝에, 딱 한 문장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이 한 일을 돌아봅니다. 그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9절). 힘써 아름다운 말을 찾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했다고 합니다(10절). 그러면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고 말합니다(11절). 지혜자의 말은 편하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12절).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마침내 온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1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악 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14절). 그 길고 긴 헛됨의 이야기가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은밀한 일까지 다 드러나면 우리 중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해 아래의 헛된 것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경외의 자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인생의 페이지 마지막에 어떤 글이 써있기를 바라십니까?
2. 그를 위해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전 9:13-18)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455장)"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좋은 것들을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좋은 가문이 되고 싶으신가요?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가문이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주는 가문이 되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잊혀지고, 가문이 잊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 아래 모든 것들은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잠시 기억되는 것 같다가도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 위를 바라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2.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아가 1-4장

검으나 아름답다(아 1:5-6)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의 외모를 검다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하며 햇볕에 쬔 여서 거무스름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늘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녀가 아름답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녀의 모습은 게 달의 장막, 즉 보기 흉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 같으나,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을 염소 가죽이 아니라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대해주는 신랑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5절).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보여준 사랑의 눈빛과 음성에, 자신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검은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에 자기 가치관을 두고 집중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감은 잊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름답기에 합당하지 않다거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함이나, 우리의 의에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결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습 3:17).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전능함을 능가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사랑을 받을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검고도 검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닌 존재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향한 줄 믿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하십니까?





아가 5-8장

애칭(아 5:1-2)

신부 된 솔람미 여인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랑 된 솔로몬은 한밤중에 그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그녀를 깨웁니다.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잠결에 피곤해서인지 잠에서 깨어나진 못합니다. 그러자 신랑은 신부를 온갖 애칭을 불러가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연인이 문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온갖 사랑이 담긴 애칭이 모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와 같은 솔로몬만의 애칭을 갖고 솔람미 여인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그분만의 애칭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사 그분만의 애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을 애칭 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즉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친근히 부르시는 애칭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대해주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든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게으른 우리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애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애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칭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애칭을 가장 듣기 좋아하십니까?
2. 하나님은 나로부터 어떤 애칭을 듣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사야 읽기



이사야 1-5장

최고의 포도원(사 5:1-7)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당시 포도원에서는 보통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의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건축물입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큰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실을 얻을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그동안 정성을 쏟은 만큼 최상의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열렸으며, 이로 인해 주인은 큰 실망과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포도원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열심으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에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담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공동체에 사랑과 정성을 쏟으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성숙해져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히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부터 기다리신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포도입니다(4절). 그분은 양보다는 질의 관심이 있으시며, 겉 본다는 중심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는 아주 풍성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양의 제사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보다는 진실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진실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와 순종으로 그것을 삶의 예배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포도원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2.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6-10장

참 빛(사 9:1-7)

오늘 본문에선 우리에게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앓수르의 침공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예수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거니실 것을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그늘진 땅이지만, 찬란한 예수그리스도의 빛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 땅에 비취질 것을 예언하였으며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황폐했던 인생이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늘진 인생에 빛을 비취주십니다. 슬픔이 가득 찼던 삶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죄에 멍에를 메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음 끝에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어찌 의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우리의 마음 깊이, 삶 속 깊이, 영혼 깊이 영접하고 빛 속에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고 지내십니까?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11-15장

원수를 위한 탄식(사 15:5-6)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이 동침하여 시작된 족속입니다. 즉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도와주어야 할 혈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압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모압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이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들이 의지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모압 족속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모압을 향하여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5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재앙을 마음으로 울부짖고 탄식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모압 족속과도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혹여나 속으로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사야의 탄식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심판을 즐거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마주친다면,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미워하는 자가 화를 당할 때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2.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악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아요(사 15:1-6)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용서해 주시고 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모압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나요? 모압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이 좋게 지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사야는 원수인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자 속으로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했어요. 이는 원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나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난 모습을 보자 속으로 '잘 되었구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보살피고 도와주었죠. 우리도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대하고 있나요?
2.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였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이사야 16-20장

무엇을 의지하시나요?(사 20:1-6)

오늘 본문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처럼 앗수르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던 앗수르가 세력을 키우며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징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고 돌아다니는 것은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4절에서 벌거벗은 이사야처럼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게 끌려갈 때에 그들의 수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구스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던 자들이고, 애굽은 그들이 자랑하던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구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고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애굽과 구스는 앗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달려가 도움을 구했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던 대상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무너질 것이며, 결국 벌거벗은 이사야의 수치는 애굽과 구스의 수치를 넘어 남유다의 수치를 드러내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게로 달려가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해변 주민"이라고 칭하십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로 달려가고 그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사야의 수치는 우리의 수치가 될 것이고, 해변 주민이라 불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애굽과 구스'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나의 삶 속에 돌이켜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21-25장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사람(사 25:6-9)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많은 분량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단순히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까지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한 연회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황폐가 된 현실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릴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민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다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25-30장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사 26:1-5)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심판처럼 여겨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며, 곤핍하게 하시며,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게 하시며, 사망이 그들을 둘러싸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신뢰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장차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신약의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마음의 중심(심지)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돌이키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평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려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1-36장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사 35:5-10)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었으며,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위협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 없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소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5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 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나라를 통해 이뤄졌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광야에 꽃이 피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이, 건지심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로가 있을 것인데,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깨끗한 자만이 지나갈 수 있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해 시온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처해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여기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요 14:6).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함을 얻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의 기쁨과 평안을 믿음으로 지금의 삶으로 끌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최근 나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앞에서 나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먼저 듣고 있습니까?
2.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길에 올라서기 위해 한 번 더 돌이켜야 할 죄의 습관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7-42장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라(사 40:27-31)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노골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위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관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여부와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41장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자 회복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사 40:1-2,27-31)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민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본문

(본문을 읽고 짧은 시간이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나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야. 왜 위로를 하실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을까? 맞아. 어려운 상황, 위로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니까 위로하셨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거야.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28,29,31절)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셔.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떠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야.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의미야.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해.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실 거야.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새 힘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앙망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요!

나눔질문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2. 앙망하다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3.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31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